

류현진, '투수들의 무덤' 서 10승 재도전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시즌 10승에 재도전한다. 29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열리는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할 전망이다.

상했지만 1군으로 올라온 토니 곤솔린의 영향으로 하루 더 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즌 10승을 위한 네 번째 도전이다.

류현진은 지난 5일 애리조나 다이나모스전에서 시즌 9승을 올

29일 콜로라도 원정경기 선발 등판 예정
앞서 3경기 평균자책점 0.69 호투 불구
타선·수비 도움 못받아 승수 추가 못해

렸다. 그러나 이후 세 번의 등판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다. 6월 들어 네 번의 등판에서 평균자책점 0.69의 좋은 성적을 올렸지만 타선과 수비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승수를 추가하지 못했다. 지난 5월 5승을 거두면서 ‘이달의 투수상’을 거머쥐었지만, 6월에 1승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특히 내야진의 수비가 불안한다. 25일 콜로라도전에서도 다저스의 영성한 수비 때문에 류현진은 잠시 흔들리기도 했다.

콜로라도 원정도 부담스럽다.

쿠어스필드는 공기 저항이 적어 변화구의 각도가 무뎌지고 타구가 더욱 멀리 날아가는 구장이다. 투

수들의 무덤이라고 불린다.

콜로라도 강타자들은 부담된다.

24일 기준으로 찰리 블랙번(0.331), 놀런 아레나도(0.324), 데이비드 달(0.319)은 내셔널리그 타율 부문에서 4, 5, 6위를 달리고 있다. 아레나도는 올해 19홈런, 블랙번은 18홈런을 터뜨릴 정도로 파워도 겸비하고 있다.

류현진에게도 이번 등판은 매우 중요하다.

류현진은 올해 9승 1패 평균자책점 1.27을 기록하면서 메이저리그 데뷔 후 커리어 하이 시즌을 노리고 있다. 전반기에 10승을 거두고 후반 기에도 지금과 같은 페이스를 보여준다면 ‘사이영상’ 후보 1순위다.

수영대회 100배 즐기기

6개 종목별 경기장 면면은

경기장 대부분 기존시설 활용 비용절감 실현

오는 7월12일 개막하는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축구장과 실내체육관 등 기존 시설을 국제규격에 맞는 경기장으로 탈바꿈시켜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한 대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메인경기장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 = 경영·다이빙 경기 열려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은 광주수영대회 메인경기장이다. 이곳에서는 경영과 다이빙 경기가 열린다.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은 2015년 7월 전세계 대학생 종합 스포츠대회인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린 경기장이다. 최첨단 운영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아시아 최고의 시설과 최상의 수질을 자랑한다.

기존 3290개의 관람석을 1만 1000석으로 늘리고 운영실도 3886㎡에서 8797㎡로 확충했다. 대회가 끝나면 증설한 임시 설치물은 모두 철거 된다.

◇ 남부대학교 축구장 = '수구' 경기장으로 변신

수구 경기장은 남부대학교 축구장 바닥에 단단한 철근을 깔고 그 위에 경기풀과 훈련풀 임시수조 2개를 올리는 방식으로 지었다. 경기풀 규격은 '길이 35m×너비 25m×깊이 2m'이며, 훈련풀은 '길이 50m×너비 25m×깊이 2m'로 설치했다.

관람석은 총 4500석이다. 여름철 야외에서 경기가 열린다는 점에서 관객 편의를 위해 관람석 위로 그늘막을 설치했다.

◇ 광주 염주종합체육관 = '아티스틱 수영장'으로 변신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은 90년대 프로농구 공식 경기장이었지만 수영과 발레가 어울려진 아름다운 스포츠로 불리우는 '아티스틱 수영'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이뤄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체육관 바닥을 완전히 드러내고 지하 2m 깊이를 파냈다.

이렇게 확보한 경기장 내 지하 공간에 '길이 30m×너비 20m×깊이 3m' 규모의 경기풀과 '길이 20m×너비 15m×깊이 3m' 규격



지난 14일 광주 조선대학교 축구장에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하이다이빙 경기장 설치 막바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 훈련풀을 각각 설치했다.

관람석은 총 5360석에 운영실은 4278㎡ 규모로 조성했다.

◇ 조선대학교 축구장 = '하이다이빙' 경기장으로 깜짝 탈바꿈

하이다이빙 경기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民立)대학인 조선대학교 인조잔디 축구장 위에 가설로 지었다. 조선대 분관을 배경으로 널따란 인조잔디 위에 토대를 만들고 그 위에 지름 17m, 깊이 6m의 임시수조를 올렸다.

수조 옆에는 27m 높이의 남자부 플랫폼과 20m 높이의 여자부 플랫폼이 달린 '다이빙타워'를 설치했다. 관람석은 총 3000석이다.

하이다이빙 경기는 다이빙의 공중 예술연기와 함께 조선대 분관이 물론 광주 시내 전경과 무등산이 함께 어우러진 영상과 사진이 전 세계로 제공될 예정이다.

◇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에 들어선 '오픈워터 수영장'

이번 대회 경기 중 유일하게 바다에서 열리는 종목이 '오픈워터 수영'이다. 조직위는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열렸던 엑스포해양공원 내에 방송시설, 선수시설, 관람석 2095석, 기능실 78개소 등 부대시설을 설치했다.

바다위에 조성된 경기장은 출발대를 시작으로 길게 늘어선 부표를 따라 2.5km 코스로 이뤄졌다.

EPL 홈페이지 “박지성·손흥민, 누가 아시아 최고 선수인가” 투표

팬들의 선택은 손흥민일까, 박지성일까.

25일(한국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홈페이지에 한국 팬들의 흥미를 자아낼 설문 항목이 등장했다. '누가 아시아 최고의 선수인가'라는 EPL의 물음이다.

이번 설문은 박지성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단 14주년을 맞이해 이뤄졌다. 박지성은 14년 전인 2005년 6월25일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벤을 떠나 세계 최고 명문 클럽 중 하나로 꼽히는 맨유로 이적했다.

EPL이 정한 후보는 총 5명으로 박지성, 손흥민, 기성용, 가가와 신지, 오카자키 신지 등이다.

가장 먼저 박지성이 소개됐다. "7시즌 동안 울드 트래퍼드에서 뛰 박지성은 프리미어리그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정상 경험을 경험한 첫 번째 아시아 선수가 됐다.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팬들을 사로잡았다"고 했다. 박지성은 EPL 154경기에서 19골 21도움을 올렸다.

손흥민(130경기 42골19도움)을 높이는 EPL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아시아 선수다. 그가 넣은 42골은 다른 선수들의 배가 넘는다. 2016년 9월에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이달의 선수상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성용(184경기 15골9도움)과 가가와 신지(38경기 6골6도움), 오카자키 신지(114경기 14골4도움) 역시 두 선수와 함께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팬들의 표심은 손흥민과 박지성으로 나뉘는 분위기다. 한창 활동 중인 손흥민이 낫 12시 현재 50%의 지지를 얻어 1위를 달리고 있다. 박지성이 46%로 후배의 뒤를 바짝 추격 중이다. 기성용이 2%, 오카자키 신지와 가가와 신지가 각각 1%를 득표했다.

뉴시스



전남드래곤즈, Mental 프로그램 'Kick-off'

전남드래곤즈(사장 조명영)는 선수들의 긍정 심리자본을 증진시켜 최상의 멘탈을 가지고 후반기 성적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심리와 정신진반을 서포트하는 Mental 프로그램을 Kick-off 했다.

이 Mental 프로그램은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며, 첫 코칭은 최근 오후 3시부터 포스코교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첫 시간에는 국민대학교 리더십 코칭교수인 박창규 교수(국제공인 마스터코치)의 '자기인식과 잠재력을 일깨우는 방법'에 대한 특강을 통해 왜 스포츠 멘탈코칭이 필요한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자기 인식과 잠재력, 목표달성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

다.

또한 그룹 코칭을 통해 '나는 어떠한 선수인가?', '나의 멘탈은 안녕한가?'라는 주제로 자신들을 되돌아 보고 선수들 자신의 잠재력과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드래곤즈는 앞으로도 매 멘탈코칭 세션마다 주제별 미니특강과 그룹별 멘탈코칭 진행을 통해 선수들의 정신력을 단단히 구축하고, 격주로 주제에 맞는 멘탈코칭을 통해 선수들의 정신력에 대한 이해와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며, 2회차는 '탁월함을 내는 강점기반의 플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평양=김승호 기자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새마을, 회현사, 선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가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